

냉전의 반공주의와 화해 협력의 분단극복 정책: 김대중의 햇볕
정책과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에 대한 비교□

노명환 (한국외대)

목차

I. 머리말

II. 남한과 서독에서 냉전의 반공주의 내재화와 그 특징

1. 냉전과 반공주의

2. 남한과 서독에서의 냉전의 반공주의 내재화 비교

2-1) 남한에서 냉전의 반공주의 내재화와 특징

2-2) 서독에서 냉전의 반공주의 내재화와 특징

III. 김대중과 빌리 브란트의 반공주의와 분단극복 정책

1. 김대중의 반공주의와 햇볕정책

1-1) 김대중의 반공주의

1-2) 김대중의 햇볕정책

2. 빌리 브란트의 반공주의와 동방정책

2-1) 빌리 브란트의 반공주의

2-2)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

IV. 맺음말

I. 머리말

본고에서 필자는 대한민국(남한)과 독일연방공화국(서독)에서의 반공주의와 분단극복 정책의 상호 관계를 김대중의 햇볕정책과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을 통해 살펴본다. 그런데 김대중의 햇볕정책과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은 남한과 서독이라는 서로 다른 국가 사회적 토양에서 구상되고 추진되었다. 그 서로 다른 토양을 구성하는 주요 인자들 중의 하나가 반공주의의 차이였다. 이 반공주의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우리는 남한과 서독의 반공주의 내재화와 그 특징을 체계적으로 인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뜻에서 본고는 남한과 서독의 반공주의 내재화 과정과 그 성격을 살펴보고 빌리 브란트와 김대중의 반공주의와 분단극복정책을 비교적 차원에서 조명한다.

제목이 표현하고 있는 반공정책과 화해,협력의 분단극복 정책은 일반의 시각으로 일견할 때 서로 모순되는 두 개념의 조합으로 나타날 수 있다. 특히,

남한의 역사적인 그리고 현재의 상황에서 반공주의는 많은 부분 분단의 저편, 북한에 대한 적대성을 상징한다. 따라서 이 두 개념은 분명히 모순의 조합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필자는 반공주의 개념 및 그 이해 방식과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폭넓은 스펙트럼에 대해 주목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예를 들어, 반공주의는 공산주의의 멸절을 추구하는 극단의 입장에서부터 공산주의와의 공존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입장에 이르기까지 긴 스펙트럼의 다양한 의미들을 내포한다. 이를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의 기호학을 빌려 설명한다면 반공주의라는 용어의 '기표 (the signifier)'와 위에서 말한 폭넓은 스펙트럼의 다양한 '기의 (the signified)'들이 합쳐져서 반공주의 개념의 '기호 (the sign)'들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¹ 즉, 이러한 현실에서 반공주의를 어느 한 특정 개념으로 고정시키면서 상호 소통하려 할 때 많은 오해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실제적으로 그러한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반공주의라는 기호가 갖는 다양한 기의들의 넓은 스펙트럼을 면밀히 이해하는 것은 이분법적으로 적과 동지를 나누기 위한 냉전의 반공주의 정체성 구성방식, 즉 이분법적이고 대자적인 정체성 구성방식을 극복하는 길이 될 것이다.

반공주의의 그러한 넓은 스펙트럼 중에서 김대중과 빌리 브란트의 반공주의도 각기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필자가 보기에 본문에서 설명하듯 빌리 브란트와 김대중의 반공주의는 자유, 민주주의, 평화, 인권, 다양성의 존중 등의 가치를 표상하는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반공주의는 무조건적으로 공산

¹ Ferdinand de Saussure, Roy Harris, Course in General Linguistics, Open Court Classics, 1998 (reprint of the first edition in 1916); 요하네스 페르 (최용호 옮김), 소쉬르, 언어학과 기호학 사이, 인간사랑 2002.

주의의 멸절을 주장하는 또는 그와 유사한 반공주의와 매우 크게 차별화되는 성격을 보여준다. 그들은 이러한 의미의 반공주의를 추구하면서 화해.협력의 분단 극복을 실현하고자 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고의 제목은 반공주의와 화해.협력의 분단극복이라는 두 개념을 순리적으로 연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브란트와 김대중이 자유, 민주주의, 평화, 인권, 다양성의 존중 등의 가치들을 추구하는 반공주의 입장에 섰다는 것은 이들이 공산주의 이론에서 이러한 가치들을 저해할 수 있는 측면들을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은 실질적으로 현실 공산주의, 예를 들어 소련, 동유럽, 북한 등의 사회가 위의 가치들을 구조적으로 저해.억압해오고 있다고 인식한다. 이들은 이들 지역으로 위에서 열거한 가치들이 화해.협력을 통해 전파되고 또 동시에 이들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이들 지역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것이 냉전에 임하는 그들의 입장이었으며, 냉전 속에서 분단된 그들 조국의 상황을 극복하는 길이라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는 김대중의 햇볕정책과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의 본질을 이해하고 자 한다.

II. 냉전 그리고 남한과 서독에서의 반공주의의 내재화

1. 냉전과 반공주의의 성격

냉전의 원인과 성격의 규명에 대해서는 냉전이 전개되는 와중에서 여러 해석의 입장들이 개진되었다. 냉전을 방불케 하는 이 해석의 입장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주의자들은 냉전의 시작을 소련의 공산주의 팽창시도로부터 보고 이에 맞서 자유세계를 방어하기 위한 미국의 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보았다.² 둘째, 수정주의자들은 냉전의 시작을 미국의 경제 제국주의에 기인한 미국의 정책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았다.³ 셋째, 현실주의자들은 전통주의자들 입장에 서지만 그들의 일방적인 이데올로기를 극복하고자 하였다.⁴ 넷째, 후기수정주의자들은 수정주의 입장에 서지만 학문적 검증에 역점을 두었다.⁵ 다섯째, 독일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냉전은 독일문제

² Boris Meissner, *Rußland, die Westmächte und Deutschland*, Hamburg 2 edn (1954); John Lukacs, *A History of the Cold War*, Garden City (1961); W.J. Spanier, *American Foreign Policy since World War II*, New York (8. edn. 1980); A. Schlesinger (ed.), *The Origins of the Cold War*, Waltham Massachusetts/Toronto (1970).

³ W.A. Williams, *The Tragedy of American Diplomacy*, New York 1959; L.C. Gardner, *Economic Aspects of New Deal Diplomacy*, Madison 1964; L.C. Gardner, *Architects of Illusion. Men and Ideas in American Foreign Policy in the Cold War*, New York 1965; David Horowitz, *Kalter Krieg. Hintergründe der US-Außenpolitik von Jalta bis Vietnam*, Berlin (2. vol. 1969); W. Lafeber, *America, Russia and the Cold War 1945-1975*, New York (3. edn. 1976); Joyce and Gabriel Kolko, *The Limit of Power. The World and United States Policy 1945-1954*, New York 1972.

⁴ L.J. Halle, *The Cold War as History*, New York 1967; H.J. Morgenthau (ed.), *The Origins of the Cold War*, Waltham Massachusetts/ Toronto 1970; A.B. Ulam, *Expansion and Coexistence. The History of Soviet Foreign Policy 1917-1967*, London 1968; R. Morgan, *The Unsettled Peace. A Study of the Cold War in Europe*, London 1968.

⁵ G.C. Herring, *Aid to Russia 1941-1946: Diplomacy. The Origins of the Cold War*, New York 1973; G. Lundestad, *The American Non-Policy towards Eastern Europe 1943-1947*, New York 1975; Daniel Yergin, *Shattered Peace. The Origins of the Cold War and the National Security State*, Boston 1977.

를 푸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서는 특히, 김벨 (Gimbel)의
테제가 중요하다.⁶ 여섯째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보는 관점을 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로트의 입장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는 미국
과 소련 사이 서로 오해의 연쇄작용으로 냉전이 전개되었다고 본다.⁷ 그에
따르면 제 2차 세계대전 후 냉전의 전개는 전쟁 그리고 전후 연합국의 해체
기 동안에 자본주의 나라인 미국과 영국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인 소련 사이
에 내재한 상호 불신 관계와 깊은 관련이 내재해 있었다. 미국은 공산주의
국가 소련에 대한 불신이 있으면서도 나치 독일을 이겨야 하는 필요성, 전쟁
기간 동안 소련과의 협력을 통해 소련의 체제를 자본주의 체제로 바꾸고자
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었다. 소련도 자본주의 국가 미국에 대한 불신을 가지
고 있으면서도 나치독일을 패배시켜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또한 직면해 있
었다. 그런데 전쟁동안 소련은 대서양 연안에서 제2전선 구축이 늦어지는 것
에 대해 미국이 소련을 붕괴시키려는 전략에 기초한 것으로 해석했다. 그러
면서 동시에 전후 복구에 미국의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다. 그
러나 소련은 전쟁에서 미국에 의해 이용되고 미국의 원조를 받음으로써 미
국의 자본주의 시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소련은
전쟁 후 미국의 지원에 의지하기보다는 패배한 독일로부터 배상을 받고 전
후 복구를 하며 동유럽의 국가들을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두는 것에 정책의

⁶ J. Gimbel, *The Origins of the Marshall Plan*, Stanford University Press (1976); J.
Gimbel, *The American Occupation of Germany: Politics and the Military, 1945-1949*,
Stanford University Press, 1 edition (1968).

⁷ Wilfried Loth, *Die Teilung der Welt des Kalten Krieges 1941-1955*, , Munchen 1980 (7. ed.
1989). 그의 핵심 테제에 대해서는, 특히 이 책의 p. 111 참조; 영어 번역 본, *The Division of the
World, 1941-1955*, Palgrave Macmillan (1988).

초점을 모았다. 동유럽 국가들을 공산화하여 자신의 영향권 아래 뒀으로써 안전지대 (security belt)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반면 미국은 소련이 세계 공산화의 길을 강화해 감으로써 미국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을 갈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었다. 미국은 소련의 동유럽 국가들에서의 붉은 군대 (red army)와 비밀경찰(KGB)을 동원한 공산화 정책 등을 세계 공산화 정책의 단초로 보았다. 로트는 이러한 측면에서 냉전의 원인과 전개과정을 이러한 상호 불신이 각각의 정책적 목적과 실행에 대해 상호 오해의 가속화 과정으로 이해한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냉전의 단초가 되는 미·소 관계 속에서 루즈벨트 (Franklin Roosevelt, January 1882 – April 1945) 미국 대통령은 소련과 화해·협력 정책을 통해 전후 소련의 체제를 자본주의 체제로 바꾸어 '하나의 세계 정책(one world policy)'을 실현하려 했다. 그는 화해·협력 정책을 통해 소련사회를 바꿈으로서 그의 반공주의를 실현하려 했다.⁸ 그는 소련과의 신뢰관계를 중시했고, 소련의 입장을 존중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그는 소련과 화해·협력을 통해 공산주의 권을 자본주의 세계로 전화시키고자 한 반공주의자였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그가 1945년 4월 12일 사망하고 부통령이던 트루먼(Harry S. Truman, 1884-1972)이 대통령이 되었다. 트루먼 행정부는 소련과 화해·협

⁸ 이러한 루즈벨트 정책을 뒤에 설명할 빌리 브란트와 김대중의 반공주의와 분단극복 정책과 비교해 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력 정책을 통한 '하나의 세계 정책'을 포기하고 대결을 지향하는 강경정책인 '두개의 세계 정책 (two world policy)'을 추진했다. 이러한 소련에 대한 미국의 대응전략이 1947년의 트루먼독트린 (Truman Doctrine) 그리고 마셜플랜 (Marshall Plan) 정책⁹으로 구체화 되어 나타났다. 그것은 루즈벨트의 정책과 대비되는 냉전의 반공주의 정책이라 말할 수 있겠다.

이러한 강경정책에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련의 동유럽 국가들에서의 붉은 군대 (red army)와 비밀경찰(KGB)을 동원한 공산화 정책, 전후 독일 문제 해결을 놓고 소련과 갖게 되는 대립관계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했다. 트루먼 행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많이 미친 캐넌(George F. Kennan)의 '긴 전문 (long telegram, 1946년 2월 22일)'¹⁰ 그리고 Foreign Affairs 지에 그의 익명으로 기고한 X article, "소련행동의 근원(The Source of Soviet Conduct, 1947년)"¹¹에서 알 수 있듯 소련이 유럽과 세계에서 궁핍과 사회혼란을 가중시킴으로써 사회혁명을 유발시키고 그를 통해 세계공산화의 길을 실현시키려 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시급히 소련에 대한 강경 정책을 취해야 한다고 트루먼 행정부에 주문했다.

이렇듯 트루먼의 '두개 세계의 정책'들의 목표와 추진 방법에는 이분법적으로 적과 동지를 가르는 반공주의 이념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 마셜플랜의 근본 목적은 소련의 지원을 받아 사회혁명이 진행되거나 진행될 수 있는 지

⁹ 마셜 (George Catlett Marshall, 1880-1959)이 1947년 6월 5일 하버드대학교에서 유럽원조를 제안한 연설.

¹⁰ "Kennan to SecState", March 6, 1946 (FRUS, 1946, V, p. 518).

¹¹ 『Foreign Affairs』, 25 (1946-1947).

역에 경제 원조를 하여 사회 전복을 막고 소련의 영향력을 차단하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동맹국들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이는 앞의 루즈벨트 정책과 비교하여 볼 때 대결과 적대감에 기초한 냉전의 반공주의라고 말할 수 있겠다.

'두개의 세계정책'의 실시는 본격적인 냉전의 시작을 의미했다. 이 냉전의 과정에서 한 국가가 두개의 세계에 속하는 경우 그 국가들이 분단되었다. 특히 한국과 독일이 그러하였다.¹² 이러한 나라들에서는 민족국가의 정체성이 약화되고 이념의 정체성이 크게 대두하면서 커다란 혼란을 겪게 되었다. 남한과 서독에는 미국의 점령정책이 시행되었으며 세계적인 봉쇄정책 차원에서 반공주의 내재화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남한과 서독이 갖는 역사적 구조적 차이만큼 그 내재화 과정은 다르게 나타났다.

이리하여 냉전시대의 반공주의는 공산주의에 대항한 이론적 논쟁보다는 미국과 소련 사이의 전후 질서를 놓고 대립하는 가운데 미국의 전략적 수단의 성격을 크게 가졌다. 즉, 이론적인 측면에서 공산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사상적 기반으로 반공주의라기보다 공산주의 현실 세력권을 대표하는 소련과의 대결이라는 관점에서, 즉 이분법적 적과 동지의 관점에서 반공주의의 의미가 크게 자리 잡았다. 그러면서 서방권의 단결을 위한 공통분모적 메카니즘의 역할을 수행했다. 미국 내부적으로 정책의 관철을 위한 수단으로도 작용했다. 예를 들어, 트루먼 독트린, 마셜플랜의 실시를 위해 국민들의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잘 나타났다. 거꾸로

¹² 독일의 분단은 엄밀히 말해 전쟁범죄 때문에 4분할되었고, 냉전 덕택에 2분할로 통합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동서의 분단은 냉전에서 비롯된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주의공화국의 건국에 의한 것이었다.

소련의 경우는 그들의 독재체제와 제국주의적 팽창정책의 명분을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대결에서 찾았다.

2. 남한과 서독에서의 반공주의 내재화

2-1) 남한에서의 반공주의 내재화와 특징

1945년 8월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배로부터 해방되면서 북한에는 소련군정, 남한에는 미군정이 실시되었다. 미군정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한국의 탈식민화 과정을 돕고 세계적 봉쇄정책을 실현하는 방향에서 남한의 위치를 정립하는 것이었다. 냉전의 진전과 더불어 한국은 남과 북으로 분단이 고착되어 갔으며, 대한민국(남한)의 건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북한) 건국은 그 귀결점이었다. 냉전의 세계체제에서 볼 때 대한민국(남한)은 세계적 봉쇄정책의 방과제 역할을 수행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이러한 국제적 상황에서 한국은 탈식민화를 완전히 달성하여 민족국가를 재건하고 민족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국력을 모으기 보다는 남과 북으로 갈라져 냉전의 대결적 이념 정체성을 주요 현안으로 만들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냉전시대의 대두된 민족국가의 정체성에서 이념의 정체성으로 정체성 단위의 강조점이 변화되는 시기였는데, 한국의 상황에서 첨예하게 일어났다. 이러한 상황은 탈식민화의 민족적 과제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분단된 남과 북이 각각 민족의 정체성을 약화시키면서 이념의 정체성에 따라 냉전의 세계체제로 급속히

편입되어 가는 것을 의미했다. 이는 민족국가 정체성과 이념의 정체성이 혼재한 상태로 분단이 굳어가는 것을 의미했다. 이는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지배시대를 제대로 청산하고 새롭게 민족국가를 건설하는 역사과정이 순조로울 수 없음을 의미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남한에서는 반공주의의 내재화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식민지 시대의 일제 협력 세력이 해방 후에도 계속 남한 (대한민국) 사회의 주도 세력으로 남을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반공주의가 주요한 이슈가 되면서 일제협력 세력이 반공의 투사로 자리 잡는 현상도 일어났다. 여기에 북한의 침략에 의해 발발한 한국전쟁은 남한의 반공주의 내재화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민족의 정체성을 저버린 냉전의 이념 정체성에 의한 처참하고 잔인한 상호 살육의 한국전쟁은 남한의 한국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다.

냉전시대의 반공주의 내재화 과정은 공산주의의 본질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지에 대한 냉정하고 치열한 인식론적 성찰 과정을 결하게 했다.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측면이 강하게 작용했다. 반공주의가 안보적 보장의 필요성과 직접 연계되는 측면이 크게 강조되었다. 여기에는 특히, 한국인들이 뒤에서 설명하는 독일인들의 경우와 다르게 역사적으로 이러한 체제 이념에 노출된 경험이 적다는 사실이 또한 작용했다.

반공주의가 이러한 배경에서 국내정치적으로 독재체제의 명분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본질적으로 북한의 실상이 남한의 경직된 대결적 반공주의의 정서와 명분을 강화시켰다. 특히, 북한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없는 독재정치, 공포정치, 기아상황, 개인숭배, 권력의 세습 현상 등이 그렇게 작용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냉전의 대결적 반공주의는 남한사회에서 주요 가치체계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를 부르디외(P. Bourdieu)의 개념을 빌려 표현한다면 냉전의 반공주의는 남한에서 일종의 아비투스¹³로 자리 잡게 되었다. 냉전시대에 내재화된 반공주의의 이분법적인 적과 동지를 가르는 정체성의 근간은 공산주의 사회가 붕괴된 이후에도 북한에 대한 대자적 정체성의 원천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2) 서독에서 반공주의 내재화와 특징

1945년 5월 무조건 항복을 통해 나치독일이 무너지고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의 4개국 군정이 실시되었다. 냉전의 진행과 더불어 미국, 영국, 프랑스의 3개 점령지역은 독일연방공화국(서독)으로 건국되고 소련 점령지역은 독일민주주의공화국(동독)으로 건국되면서 동·서로 분단되었다. 미국은 세계적 봉쇄정책의 차원에서 얼마 전까지 미국의 주적이던 독일의 일부분을 재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독일연방공화국(서독)의 건국자체가 냉전의 반공주의와 깊이 연계되었고, 이 과정은 서독에서 냉전의 반공주의의 내재화와 깊은 관련을 가졌다.

그런데 전후 서독에서 미국의 정책은 반공주의의 내재화에만 놓여져 있지

¹³ 아비투스 개념에 대해서는 P. Bourdieu, *La Distinction. Critique sociale de Jugement*, Paris 1979 (최종철 옮김, 『구별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상과 하, 새물결 2006); P. Bourdieu, *Algérie 60: structures économiques et structures temporelles*, Editions de Minuit, 1977 (최종철 옮김, 『자본주의의 아비투스』, 동문선 1995).

않았다. 탈나치화를 위한 '독일인 재교육 정책 (re-educational policy)'이 또한 중요한 과제였다.¹⁴ 미국은 독일의 나치 지배하에서 일어났던 바와 같은 현상이 재현되지 않도록 독일이 민주시민사회로 발전해 가는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재교육정책의 필요성은 앞에서 설명한 남한에서의 미군정 정책과 큰 차이를 나타나게 한 역사 구조적 맥락이다.

서독인들은 스스로 나치체제를 반성하면서 민주주의, 특히 다원주의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졌다. 이러한 변화를 위해 특히 68혁명 운동이 커다란 분수령으로 작용했다 .

그들은 나치체제의 원동력이 맹목적이고 극단적인 민족주의, 인종주의와 더불어 반공주의였음을 각성했다. 그래서 나치에 대한 경험과 전후 탈나치화 노력은 서독인들로 하여금 냉전의 반공주의를 신중하고 분별력 있게 판단하면서 받아들이도록 하는데 크게 작용하였다. 즉, 냉전에 의한 분단의 한편인 서독의 사람들은 냉전의 반공주의를 다원주의 원리 속에서 받아들이고자 하였다. 그들은 냉전의 분단과 대치 상황에서 반공주의가 중요하다고 보았지만 감정보다 논리에 의거한 반공주의를 추구하고자 하였다. 독일인들은 앞에서 설명한 한국인들의 경우와 비교해서 본다면 이미 19세기 산업혁명의 시기부터 바이마르시기를 거치면서 자유주의, 자본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등의 서로 충돌하는 이념문제 들에 대해 많은 역사적 경험을 쌓아두고 있었다. 이러한 터에 나치가 민족주의, 반유태주의의 인종주의와 함께 반공주의를 체제명분으로 했던 것은 그들의 이념 경험을 더욱 깊게 하였다. 이러

¹⁴ 노명환, 「미군정기(1945-1949) 독일인 '재교육(Reeducation)' 정책의 내용과 역사적 의미. 학교제도를 중심으로」, 서양사론 제 74호 (2002. 09).

한 경험들은 전후에 서독인들이 일반적으로 이념의 문제에 대해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게 하는데 기여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그들은 냉전의 반공주의를 다원주의 원리 속에서 받아들일 수 있었다. 특히, 반공주의가 서독 내에서 민족주의 및 국가주의와 쉽게 결합되는 그러한 현상은 나타나기 힘들었다. 이와는 반대로 서독은 탈나치화의 일환으로 민족주의 반성과 더불어 서유럽통합 및 유럽통합에 적극적이었다. 반공주의가 분단된 국가의 민족 및 국가주의와 결합될 때, 즉 반공이 민족과 국가를 위하는 길이라는 논리가 분단국가에서 가능해질 때 분단된 두 편 사이의 증오와 대결이 민족주의라는 정당성 속에서 극단으로 치달을 수 있음을 생각할 때 서독은 이를 피할 수 있었음을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다. 이는 앞에서 설명한 남한과 비교되는 서독의 냉전의 반공주의 내재화의 특징 중의 하나라고 하겠다.

이러한 배경에서 서독은 냉전시기에 분단의 현실에 놓여져 있었지만 다원주의를 중시했고 반공주의가 전 사회의 가치체계, 즉 아비투스¹의 핵심으로 자리잡게 하지 않았다. 그러나 탈나치화를 방해하는 방향에서 반공주의가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 냉전의 심화와 반공의 필요성 때문에 탈나치화가 불철저하게 이루어진 측면을 지적할 수 있겠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국민 개인들의 반성에 힘입어 탈나치화가 시대정신 차원에서 깊숙이 이루어졌다고 하겠다. 이러한 배경에서 서독인들은 냉전의 반공주의 이념의 공세에 쉽게 휘둘리지 않는 어느 정도 성숙한 의식의 토양을 갖게 되었다. 그들은 자유와 다원주의 가치를 중시하는 민주주의 사회 실현을 통해 이를 결하고 있는 공산주의 사회로 부터의 위협을 막고자 하였다. 이러한 민주주의는 반공의 수단이었으며 반공의 정당성은 이러한 사회를 선호하고 실현하려는 의지

에 있었다. 그러함과 아울러 독일은 동서독 간에 내전을 겪지 않았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결한 동독의 독재체제에 대해 큰 문제의식을 가지면서도 앞에서 설명한 남한에서와는 다르게 서독에서는 경직된 감정의 기초가 되는 냉전의 반공주의 내재화가 크게 회피될 수 있었다.

III. 김대중과 빌리 브란트의 반공주의와 분단극복 정책

1. 김대중의 반공주의와 햇볕정책

1-1) 김대중의 반공주의

김대중은 일제로 부터 해방된 이후의 현대사에서 반공주의 의식을 갖게 되는 여러 경험들을 하게 된다. 해방이후 신민당에 몸담았다가 공산주의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탈퇴했다.¹⁵ 그는 또한 한국전쟁을 통해 공산주의의 실체에 대해 깊은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음을 여러 곳에서 진술하였다. 그는 공산당에 의해 체포되어 목포형무소에서 죽음 직전에 탈출하기도 하였다.¹⁶ 남한 사람들이 공산당을 알고 정말 반공의식을 갖게 된 것은 6.25동란 때문입니다.¹⁷

김대중은 공산주의에 대한 이론적 차원의 비판을 여러 곳에서 시대를 넘어

¹⁵ 김대중, 『자서전 1권』, 삼인 2010, pp. 61-63.

¹⁶ 김대중, 『자서전 1권』, 삼인 2010, pp. 76-82.

¹⁷ 김대중, 『나의 길, 나의 사상』, 한길사 1994, p. 39.

일관되게 개진하며 자신의 반공주의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다음과 같은 그의 진술은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이다: □공산주의의 가장 잘못된 점은 첫째로 무엇보다도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희생되어도 좋다는 그들의 철학입니다. 이상사회는 모든 사람이 주인으로서 존중받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는 노동자를 위해서 나머지 사람들은 희생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 희생 중에는 생명의 희생까지 포함됩니다. 여기서부터 잘못되었지요. 철학적 집단주의의 논리입니다. □¹⁸ 이는 앞 장에서 설명한 반공주의의 핵심논리로서 프롤레타리아 독재론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이어서 공산주의 사회가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허용되지 않는 독재체제의 비민주 사회라는 점을 강하게 비판한다. 그는 이러한 독재체제에서 사람들의 천부인권이 상실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북한이나 소련과 같은 나라가 바로 이러한 폐해를 보여주는 절실한 예라고 그는 말한다. □둘째로 공산주의는 비판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하는 일을 완전한 인간이 한 일로 전제하고 비판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자아가 원천적으로 상실되고 말지요. 비판이 봉쇄되고 독재자가 찬양을 받으면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잘못된 판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비판이 나오면, 무고한 사람들이나 선한 사람들이 자꾸 희생됩니다. 독재는, 그것이 좌익독재건 우익독재건, 악입니다. 그것은 신이 아닌 인간을 신으로 만들고, 인간의 인간으로서 최고가치인 자아를 질식시켜버리기 때문입니다.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제도는 어떤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반인간적인 것입

¹⁸ 김대중, 『나의 길 나의 사상』, pp. 98-101.

니다. 이복을 보아도 알 수 있고 스탈린 치하의 러시아를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인권이라는 것은 하늘이 준 것으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인데, 공산주의는 이것을 쉽게 빼앗아 버립니다.□¹⁹

그는 공산주의가 물질적 평등을 위해서 자유의 가치를 희생시키는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셋째로, 공산주의가 빵을 위해 자유를 희생시키는 것도 문제입니다.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낮 놓고 기억 차도 모르는 사람도, 내가 행복하려면 자유도 있고 빵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면 물질과 정신을 대등한 입장에서 존중해야지, 어느 하나만 존중한다는 것은 잘못입니다. ... 그러나 마르크스의 공산주의에는 오직 냉혹한 물질의 논리뿐이었습니다. 유물사관.유물론.유물철학 등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오직 물질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물질적 평등을 위해서는 인간성의 유린도 독재도 서슴지 않습니다. ... 이와 같이 공산주의는 철학적 기본바탕부터 잘못이며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것입니다.□²⁰

김대중은 공산주의 이론의 장점을 자본주의의 보완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유물변증법의 철학이라든지, 유물사관의 역사관이라든지, 자본주의의 모순을 정확하게 지적한 점이라든지, 공산주의의 학문적 기여를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본주의의 단점을 보완하는 점

¹⁹ 김대중, 『나의 길 나의 사상』, pp. 98-101.

²⁰ 김대중, 『나의 길 나의 사상』, pp. 98-101.

에 있어서입니다.□²¹ 그러면서 그는 자본주의가 공산주의의 도전을 받아들여 끊임없이 자체 변화되어 왔음을 강조한다.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자본주의는 이러한 공산주의의 도전을 받아들여서 자체모순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꾸 자기 변혁을 해냈다는 것입니다. 수정자본주의의 방향으로 말입니다.□²² 이에 반해 공산주의는 자기변혁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음을 아래에서처럼 지적한다. 그 구조란 민주주의의 결여를 말했다. 이것이 동구지역의 현실공산주의가 망한 근본 이유라고 보았다. □공산주의는 자기변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데,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한쪽은 정치적 민주주의를 수용했고, 한쪽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민주주의를 수용하면, 체제는 여론의 비판을 받게 됩니다. 대중으로부터 피드백을 받는 것이지요. 대중의 피드백을 받으면, 잘못된 점을 고쳐야 하지요. 고치지 않으면, 다음 선거에서 떨어져요. 이와 같이 체제가 시대에 따라 국민의 뜻에 따라 자꾸 변해가서, 자본주의는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한다든가 자본 소유를 대중화한다든가 경영을 전문경영인에게 맡긴다든가 하여 사회주의적 요소까지 다 수용하게 되어, 과거의 초기 자본주의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는 그걸 안하다가 망한 것이지요. 여론의 비판을 용인하지 않으니까 피드백이 안 되고, 중앙집권적 관료독재가 형성되어 다수

²¹ 김대중, 『나의 길 나의 사상』, pp. 98-101.

²² 김대중, 『나의 길 나의 사상』, pp. 98-101. 이러한 김대중의 관점과 관련하여 독일사민당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데, 다음 장에서 설명하듯이 고데스베르크 강령을 도입함으로써 독일 사민당의 노선을 수정자본주의와 연계시키는데 크게 역할을 한 빌리 브란트의 반공주의 노선을 논의해 볼 수 있겠다. 베른슈타인의 '민주적 사회주의' 개념도 그 원류로서 살펴볼 수 있겠다.

의 이름을 사칭하면서 소수의 당료가 다수를 지배하고 통제하고 탄압하게 된 것이지요. 이러한 반인간적이고 부패한 체제 속에서 노동자의 협력을 얻지 못한 공산주의 경제는 붕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빵을 내건 공산주의 사회는 자유는 물론 빵까지 빼앗겨버린 것이지요. 이런 면에 있어서 공산주의 몰락은 필연적이었습니다.□²³

그는 소련 공산주의가 제국주의적 문제점을 갖고 있음을 다음과 같은 역사적 사실을 통해 지적했다. □1939년 9월의 폴란드 침입 직전(1938. 8) 소련은 히틀러와 독.소 불가침조약을 맺고 독일과 더불어 동쪽에서 폴란드에 침범했으며, 독일과 같이 폴란드 전역을 분할 합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차 대전이 끝나기 직전에는 독일에 대항해서 항쟁한 폴란드 민족주의 게릴라 부대 수만명에 대한 카친 숲의 학살을 소련군이 저질렀으며, 영국에 망명해서 망명 폴란드군 수만을 거느리고 중동지방에서 독일과 싸우며 폴란드 국민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은 런던의 망명정부의 귀환을 처칠 수상의 끈질긴 요구에도 불구하고 스탈린은 봉쇄하고 말았던 것입니다.□²⁴

이러한 진술들을 통해 볼 때 그는 분명히 실제의 경험을 통해서나 이론적으로 강력한 반공주의자였다. 그러면 이러한 철저한 반공주의자가 어떻게 해서 용공주의자란 사회적 불신을 받으면서 그 많은 박해를 받아야 했는가? 평가

²³ 김대중, 『나의 길 나의 사상』, pp. 98-101.

²⁴ 김대중, 『옥중서신』, (도서출판 한울, 2000, 제1쇄; 2009, 제3쇄), pp. 169-170. 이러한 김대중의 문제의식은 다음 장에서 설명하듯이 당시에 브란트가 가졌던 소련 공산주의에 대한 우려와 비교되는 흥미로운 측면이다. 다음 장에서 볼 수 있듯이 브란트는 이러한 소련의 정책 때문에 반공주의의 길을 강화시킨다.

를 받는 정치가로 살았는가? 그것은 그의 반공주의가 앞장에서 설명한 냉전 시대의 아와 타를 구별하는 정체성의 메카니즘으로서 전투적 반공주의와 크게 달랐기 때문으로 보인다. 민주주의를 제대로 정착시킴으로써 북한 및 세계의 공산주의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즉, 그는 반공주의의 수단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을 민주주의의 실현으로 설정했다. 그에 따르면, 반공은 민주주의 실현을 수단으로 할 때 달성될 수 있으며,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반공은 추구되어야 했다. 민주주의 실현과 반공은 상호 목적과 수단의 관계를 이루고 있었다. 다시 말해, 김대중에게 있어서 진정한 반공주의는 자유, 민주주의, 인권, 다원주의 가치를 만개하게 하여 공산주의를 극복하는 것을 말했다. 그런데 이러한 그의 관점과 정치노선은 반공을 위해 민주주의를 억압할 수 있다는 명분과 함께 독재를 실시하는 정권세력과 정면으로 충돌하였다. 바로 이러한 정치 현실에서 그는 정적들에 의해 용공주의자로 몰아세워 졌다. 특히 박정희의 유신, 전두환의 독재 체제로 이어지는 시대에 그의 민주화 투쟁과 활동은 공산주의자 또는 용공주의자라는 낙인을 강화시키게 했다. 그런데 실제에 있어서 김대중의 사상은 반공주의와 다른 대척점의 공산주의나 용공주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반공주의에 있었다.

이렇듯 한국사회에서 반공주의와 용공주의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인식과 전략의 반공주의가 대립하고 있는 측면을 우리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1-2) 김대중의 반공주의와 햇볕정책

그러면 이러한 강력한 반공주의자인 김대중은 왜 공산주의 북한과 화해.협력

을 통해 통일을 이루고자 그토록 몰두했으며 햇볕정책을 개발하여 추진하였는가? 그는 그것이 진정하게 공산주의를 극복하고 북한의 체제와 사회를 바꾸어 통일을 이루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다른 한편 그는 이념의 문제와는 별도로 하나의 민족이라는 관점에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그는 점점 열린 민족주의, 초민족주의의 가치를 인식하면서 동아시아공동체, 유라시아공동체 등의 구상과 함께 민족통일을 추구했다.²⁵ 이를 위해 남한의 민주화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보았고 남한 내의 세 세력들이 진정한 화해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여러 기회에 그는 이 점을 강조했다. 예를 들어, 김대중은 진정한 반공은 남쪽 내부의 화해와 민주주의의 발전에 있다고 보았다. 1980년 9월 소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으로 사형구형을 받은 후 최후 진술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10.26 이후 무엇보다도 국가 안보, 경제 안정, 민주 회복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며 ... 나는 일관되게 정치 보복 없는 국민 화해를 주장했으며 이런 의미에서 ... 나의 납치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을 용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나라에는 분명히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유신 세력이 있는 반면,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다수의 민주주의 세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한쪽 세력도 다른 세력을 억누르고서는 이 나라를 이끌고 갈 수 없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우리 국민은 이미 민주주의를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²⁶ 그는 최

²⁵ 노명환, 「초국가주의 민주주의 평화사상과 지역공동체의 추구 및 분단극복 정책: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과 김대중의 햇볕정책의 비교사적 연구」, 『EU연구』 제 30호 (2012. 02), pp. 166-170.

²⁶ 김대중, 『자서전, 1권』, pp. 421-422.

후 진술의 끝 부분에서 자신의 처형을 받아들이면서 동료들인 공동 피고들에게 화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겼다. "

내 판단으로 머지않아 1980년대에는 민주주의가 회복될 것입니다. 나는 그걸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그 때가 되거든 먼저 죽어간 나를 위해서든, 또 다른 누구를 위해서든 정치적인 보복이 이 땅에서 다시는 행해지지 않도록 부탁하고 싶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내 마지막 남은 소망이기도 하고 또 하느님의 이름으로 하는 내 마지막 유언입니다.□²⁷

이러한 내적인 화해와 발전을 기반으로 그는 공산주의 북한과 화해 협력의 길을 열고 북한에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의 개념을 전파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이 성숙한 민주사회가 되어야 했다. 이를 통해 북한 사회를 변화시키고 통일을 이루고자 한 것이니, 이는 반공주의에 의거한 통일전략이었다. 그가 주창한 □선민주 후통일□은 이를 대변한다. 이러한 점에서 그는 앞에서 설명한 서독의 상황과 매우 큰 유사성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러한 반공주의 통일 전략은 일방적으로 북한을 와해시키고 흡수하는 반공주의 통일전략과는 확연히 달랐다. 그는 이 통일과정이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평화공존.평화교류.평화통일의 3원칙 가운데서 남북연합, 연방, 완전통일의 3단계로 이어지는 통일방안을 제시하였다.²⁸ 이러한 과정을 남과 북의 변증법적 통일 속에서 내다보았다. 그러나 그는 현실적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 다원주의, 경제번영의 시장경제, 사회복지체도로 수렴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그렇

²⁷ 김대중, 『자서전, 1권』, p. 422.

²⁸ 아태평화재단,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 남북연합을 중심으로』, 도서출판 한울 2000.

게 될 것을 확신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의 오판에 의한 도발을 저지할 수 있는 강력한 국방력과 안보태세는 필수 전제조건이었다. 이러한 차원에서 그는 통일 이후까지의 미군의 주둔을 강력히 주창했다. 그러나 그것은 공산주의의 침략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지 그 군사력 자체가 공산주의 세계 및 북한과 대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즉, 그는 강력한 국방력을 공산주의를 저지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보았고 대결하며 경쟁하기 위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 대결과 경쟁은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와 경제적 번영, 우수한 사회복지 등의 차원에서 이루어 져야 했다. 그의 이러한 신념과 정책은 서독의 상황과, 특히 다음 장에서 설명할 빌리 브란트의 것과 매우 큰 유사성을 보인다. 그의 햇볕정책이란 바로 이러한 의미의 반공주의 통일정책을 의미했다.

그는 통일로의 3단계 과정에서, 특히 제1단계인 남북연합단계를 중시하였는데 다음과 같이 설명하면서 그 의미를 강조하였다: □제1단계 목표는 남.북 간의 확고한 평화체제의 확립, 남.북에 대한 4대국의 교차승인(交叉承認), 남.북의 유엔가입 등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한에서의 민주정치와 국민경제의 튼튼한 발전을 통해서 북한이나 중.소 양국으로 하여금 평화적 공존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실감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남한 내의 진정한 단합과 번영이야말로 전쟁 억제와 평화에의 길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과함이 없다 할 것입니다.□²⁹ 그는 통일로의 도정에서 이 1단계가 함

²⁹ 김대중, 『옥중서신』, (도서출판 한울, 2000, 제1쇄; 2009, 제3쇄), p. 327.

축하는 변증법적 통일의 성격과 그 파급효과로서 시장경제 제도의 확대와 정보화시대의 공유와 자유의 확대를 다음과 같이 내다보았다: □도대체 국가 연합 체제하에서는 배우고 싶으면 배우고, 배우고 싶지 않으면 안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류를 많이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남과 북이 서로 상대방의 장점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특히 북한은 남한과 외국의 투자를 받아들이려면 시장경제의 원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정치적 자유도 차츰 허용하게 됩니다. 정보화시대인 오늘날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허용하지 않고서는 경제발전도 기술개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³⁰

2. 빌리 브란트의 반공주의와 동방정책

2-1) 빌리 브란트의 반공주의

1913년 뤼벡(Lubeck)에서 태어난 빌리 브란트는 일찍이 독일의 사회민주당 청년 당원이 되었다. 그러나 그는 보다 진보적인 정치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주의노동자당 (SAP)'의 창립 멤버로 가입하였다. 나치가 집권하자 노르웨이로 망명하여 사회주의노동자당의 기관지 기자로서 활동하였다. 그런데 그는 1936년에 스페인 내전에 참여하여 좌파사이에 전쟁이 치뤄지는 것을 목격했다. 이는 소련 코민테른의 지시에 의하여 발생한 사건으로 스페인 좌파들의 독자적인 노선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이 사건에서 브란트는 큰 충

³⁰ 김대중, 『나의 길, 나의 사상』, p. 121.

격을 받았다. 이는 소련 공산주의 정권의 제국주의적 정책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³¹ 1939년 8월 히틀러와 스탈린은 비밀리에 부전조약을 체결하여 각각의 통치체제를 상호 인정하고 각자의 '세력권 (sphere of influence)'을 양분해 갖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스탈린이 나치의 오스트리아와 체코슬로바키아 점령을 인정하고 폴란드를 분할하여 차지하였다. 이 사건에서 브란트는 대단히 큰 충격을 받았다. 그가 보기에 소련의 공산주의는 약소국의 평화와 자유 그리고 독립을 짓밟았다. 이는 전 세계의 노동자운동을 파탄에 빠뜨리는 것이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은 소련이 평화, 자유, 인권을 저버리고 제국주의적 길을 가는 데서 기인한다고 보았다.³² 이 사건은 그의 반공주의 강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는 당시 □사회주의는 자유와 민주주의에 기초해야 한다.□³³ 고 여러 기고문들에서 강조했다. 그는 급진적인 사회주의 운동에 크게 회의를 느끼면서 독일 사회주의노동자당 활동을 그만두고 다시 독일 사민당으로 복귀하였다.³⁴ 제2차 세계대전 후 서독에서 그는 반공주의 노선을 강화하면서 사민당의 지도자로 그리고 서독 전체의 지도자로 성장했다. 그는 자유에 대한 특정 계급의 독점적 지위를 주장하는 이념에 대

³¹ Gregor Schellgen, *Willy Brandt* (김현성 옮김, 『빌리 브란트』, 빗살무늬 2003), pp. 72-73.

³² Nr. 61. Aus der Broschüre Brandts. □Die Außenpolitik der Sowjetunion 1917-1939□ Oktober 1939, Bundeskanzler-Willy-Brandt-Stiftung (hrsg.), *Berliner Ausgabe Band 1, Willy Brandt. Hitler ist nicht Deutschland. Jugend in Lubeck Exil in Norwegen 1928-1940*, pp. 429-433.

³³ *ibid.*, pp. 432-433.

³⁴ Gregor Schellgen, *Willy Brandt* (김현성 옮김, 『빌리 브란트』, 빗살무늬 2003), pp. 74-75.

해 자주 경고했다. 그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독재 이론을 이 같은 논리에서 부정했다. 예를 들어 그는 1987년의 사민당 당수직을 사임하면서 행한 고별에서 다음과 같이 명백히 선언했다. “자유에 대한 독점권을 주장하는 것은 반역사적이고 민주적이지 않은 것이다.”³⁵ 종합적인 관점에서 그는 자유, 시장경제, 기업가의 자율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거버넌스 체제가 사회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들이며, 궁극적으로 공동체 구성원들의 공동결정이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라고 자주 강조했다. 예를 들어 위와 같은 연설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상술해 주었다.□우리가 자유의 개념을 공허하지 않게 하려면 자유의 개념은 의회민주주의가 더욱 심화되는 방향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자유의 개념은 국가 기구들에서 뿐만 아니라 각 지역과 기업에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경제 실체의 민주화를 통해, 물질적 진보에 대한 사회적 인본주의적 통제를 통해, (지역) 공동체 자치를 통해, 사회민주주의의 반성적 발전의 심화를 통해, 그들 기관들의 발전을 통해, ... 우리의 미래는 관료주의의 비대나 기구들의 세력에 놓여서는 안 된다. 그것은 일하는 사람들, 소비자, 공동체 시민들의 공동결정에 놓여야 한다.□³⁶ 그는 자유에 기초한 공동체 공동결정권의 가치를 강조하고 이를 사회적 민주주의 핵심으로 설정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산주의 사회에서 결여되어 있는 자유와 민주주의 문제를 자주 상기시키고 반공의 길은 자유와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 민주주의를 확실히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파했다. 같은 연설에서 그는□내가 만약 평화 다음으로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을 이야기 한다면

³⁵ □Abschiedsrede des Parteivorsitzenden Willy Brandt beim außerordentlichen Parteitag der SPD, □ 3쪽.

³⁶ ibid., 6쪽.

절대적으로 그것은 자유다.□³⁷ 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후 서베를린에서 사민당의 지도자로 활약하면서 소련 점령 지역의 공산당 세력이 소련의 지시에 의해 독일 공산당(KPD)과 사민당(SPD)을 합당하여 사회주의통일당(SED)을 만들려는 시도를 적극 저지하였으며 이러한 시도가 적어도 서베를린에서는 발부칠 수 없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는 소련 점령 지역의 베를린에서 강압적으로 사민당이 공산당에 통합되어 사회주의통일당이 형성된 것에 대해 몹시 분개했다.³⁸ 이 과정에서 당시 서베를린 사민당 지도자 로이터(Ernst Reuter)의 신뢰를 얻는 사람이 되었고, 그와 매우 긴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³⁹ 로이터도 강한 반공주의 노선의 사민당 지도자였다.

브란트는 베를린을 무엇보다도 자유와 민주주의를 결한 공산주의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야 하고 □베를린은 자유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Berlin bleibt frei).□⁴⁰ 라고 주장하고 이의 실천을 위해 그의 정치활동을 집중시켰다. 그는 독일이 나치의 유산을 일소하고 공산주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고 평화와 민주주의 속에서 유럽과 세계와 함께 살기 위해서 독일 사람들이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강대국 지향의 독일인 정체성이 아니라 평

³⁷ Bundeskanzler-Willy-Brandt-Stiftung (hrsg.), *Berliner Ausgabe Band 3, Willy Brandt. Berlin bleibt frei. Politik in und für Berlin 1947-1966.*

³⁸ Gregor Schellgen, *Willy Brandt* (김현성 옮김, 『빌리 브란트』, 빗살무늬 2003), pp. 107-108; Willy Brandt, *Erinnerungen. Mit den "Notizen zum Fall G."*, erw. Ausgabe, Berlin und Frankfurt/Main 1994, p. 149.

³⁹ *ibid.*.

⁴⁰ 그는 서베를린 시장으로서 이를 자주 언급하였으며, Bundeskanzler-Willy-Brandt-Stiftung (hrsg.), *Berliner Ausgabe Band 3*의 제목이기도 하다.

화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독일로 다시 구성되어야 했다.

1948년의 베를린 봉쇄사건, 1953년의 동베를린 봉기와 소련에 의한 진압, 1956년의 헝가리 사태와 소련의 주도에 의한 '잔인한' 진압, 1961년의 소련의 지시에 의한 동독의 베를린 장벽설치, 1968년의 체코사태 등은 계속 그의 반소련 반공주의 노선을 더욱 강화시켰다. 그러나 브란트는 반공의 방법이 평화 정착, 다원주의에 기초한 대화, 상호이해, 자유와 민주주의의 확대에 의거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1957년에서 1966년까지 서베를린 시장으로 재임하면서 이러한 반공주의에 의해 분단극복을 실현할 것을 구상하고 그 길을 닦았다. 그의 분단극복 정책으로서의 동방정책은 다음 절에서 상술하듯이 이러한 신념에 기초했다.

1-2) 빌리 브란트의 화해.협력의 분단극복 정책으로서 동방정책

빌리 브란트가 반공주의에 기초한 통일정책을 구상하고 추진했음은 그가 서베를린에서 사민당의 지도부로 자리잡아가던 1954년의 다음과 같은 언급에서 분명히 볼 수 있다. □확실히 아직은 반공주의 정책이 민주주의 정책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통독정책은 (gesamtdeutsche Politik) 반공주의 정책을 의미한다. 민주적 사회주의라는 제3의 길을 간다해도 그것은 소련에 대한 소극적인 접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비 소련 세

계와의 연대를 의미한다.□⁴¹ 그는 미국의 매카시(McCarthy) 현상에 큰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공산주의 사회와 이 국가들의 외교정책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과 불신을 다음과 같이 피력했다. □이러한 우리의 관점 때문에 우리가 미국 프락치라고 공격하는 것에 우리는 개의치 않는다. 물론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매카시(McCarthy)라는 이름과 연계된 서방의 타락상(Entartung)을 단연코 반대한다. 그러나 우리는 '공산주의의 고통을 주는 사람', '고문자(Peiniger)'와 '시체훼손자' 들과의 투쟁을 더욱 강력하게 수행할 것이다. '바늘로 찌르기 정책(Politik der Nadelstiche)'과 같은 것들이 바로 베를린에서 눈앞에 서있다. 동독(Pankow)이 우호적 제스처를 취하고, 우리가 소련과의 외교적 관계를 정상화하려는 노력을 할 때 우리는 새로운 속임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⁴² 그렇지만 그는 반공주의가 공산주의 사회와 사람들을 증오하고 그 증오를 통해 서방세계가 단결하는 현상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고 경고했다.□민주적 정당들이 반공주의에서 공통점을 가졌다. 외교에서 흑백 논리가 반영되고 있다. 국내정치에서 적과 동지의 관계만 강조하는 등 단순논리가 판을 치고 있다.□⁴³ 그에 따르면 반공주의는 자유와 민주주의, 다원주의(Pluralismus)를 의미해야 했다. 그는 1959년 사민당이 고데스베르크 (Bad Godesberg Program) 강령을 채택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 강령은 베른슈타인이 19세기 말 이끌어 낸 수정주의 노선이 다

⁴¹ Nr. 22, Aus der Rede des Berliner Bundestagsabgeordneten Brandt auf dem Landespartei-tag der Berliner SPD zu seiner Kandidatur als Landesvorsitzender, 9. Mai 1954, Bundeskanzler-Willy-Brandt-Stiftung (hrsg.), *Berliner Ausgabe Band 3, Willy Brandt. Berlin bleibt frei. Politik in und für Berlin 1947-1966*, p. 176.

⁴² Bundeskanzler-Willy-Brandt-Stiftung (hrsg.), *Berliner Ausgabe Band 3*, p. 177.

⁴³ Bundeskanzler-Willy-Brandt-Stiftung (hrsg.), *Berliner Ausgabe Band 3*, p. 431.

시 한번 커다란 질적 차이를 보이면서 수정된 결과였다. 원래 마르크스주의 이론가였던 베른슈타인은 마르크스주의를 비판하면서 '민주적 사회주의 (Demokratischer Sozialismus)'를 주창하였다.⁴⁴ 자본주의에 대한 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 자유와 민주주의 강조하였다. 그는 사회주의는 민주주의를 필요로 하며, 민주주의는 사회주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근본에 있어서 수정 마르크스주의자로 남았다. 그런데 브란트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작성된 고데스베르크 강령은 마르크스주의와 완전한 결별을 보여주었다. 이 강령에서는 마르크스주의가 언급도 안 되었다. 사적 소유가 완전히 인정되었고, 자본주의 쪽에서 진행되는 수정 자본주의 노선과 접목해 들어갔다. 이 강령은 자본주의를 인정하면서 분배의 정의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시스템의 작동을 위해서 브란트는 민주주의의 심화와 확대를 가장 중요한 정치 과제로 꼽았다. 그는 동독과의 우호적 관계를 증진시키면서 이러한 시스템이 동독의 시스템과 변증법적으로 수렴되어 가기를 희망하였다. 그런데 결과에 있어서 이 수렴은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동독에 전파하고, 동독을 변화시키는 것에 귀착될 것으로 그는 예견했다. 그는 반공주의가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교류 협력을 통해 자유와 민주주의를 동독으로 확대하고 동독을 변화시킬 수 (Transformation) 있어야 한다고 자주 주창했다.⁴⁵ 그는 특히 1961년 소련의 지시로 동독에 의해 베를린장벽이 설치되고 나서 이러한 관점을 더욱 강화시켰다. 그는 이 시점

⁴⁴ 최영태, 『베른슈타인의 민주적 사회주의론 수정주의 논쟁과 독일사회민주당』, 전남대학교 출판부, 2007, pp. 70-78.

⁴⁵ Bundeskanzler-Willy-Brandt-Stiftung (hrsg.), *Berliner Ausgabe Band 3*, p. 436-437.

에서 동독 및 동유럽 국가들과 접근을 통한 그들 나라의 사회를 변화시키는 정책에 대하여 미국 대통령 케네디(J. F. Kennedy)와 심도 있게 의견교환을 하였다. 그는 기존의 '통일 독일 (Gesamtdeutschland)' 개념을 화해 협력에 기초한 '내독 관계 (Innerdeutsche Beziehungen)'의 증진이라는 개념으로 바꾸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측면은 그가 투칭(Tutzing)에서 행한 연설에서도 명백히 나타났다.⁴⁶

그가 1969년 서독의 수상이 되었을 때 서독 내의 민주주의 심화를 외치면서 (Mehr Demokratie wagen) 동방정책의 실시를 예고하였다.⁴⁷ 이러한 그의 정책적 원칙으로 인해 브란트의 사민당이 기업인들의 이해와 정치철학과 깊이 연계되어 있는 자민당과 연정을 맺을 수 있었다.

그는 동독을 국가로 인정하고 (국제법상이 아닌 정치적 차원에서) 전후의 새로운 국경선인 오더-나이제 강을 인정하고자 했다. 이러한 정책을 추구하는 것은 독일의 영구분단 정책이라는 비판과 공산권에 영구히 영토를 떼어준다는 거센 비판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이어서 민족주의 관점에서 그리고 반공주의 측면에서도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그는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화해 협력에 기초하여 교류를 해야지 적대의 반공주의만 추구하면 평화를 보장할 길이 없고 분단극복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⁴⁸ 그에 따르면 진정

⁴⁶ Nr. 92 Rede des Regierenden Bürgermeisters von Berlin, Brandt, im Politischen Club der Evangelischen Akademie Tutzing 15. Juli 1963, Bundeskanzler-Willy-Brandt-Stiftung (hrsg.), *Berliner Ausgabe Band 3*, p.419-449.

⁴⁷ 이러한 브란트의 정치는 앞에서 김대중이 '선민주 후통일'을 주장한 것과 매우 큰 유사성을 보여준다.

⁴⁸ Bundeskanzler-Willy-Brandt-Stiftung (hrsg.), *Berliner Ausgabe Band 3*, p. 434.

한 반공주의는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적대의식을 키우면서 단절을 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평화, 자유, 민주주의, 인권, 다양성의 존중, 분배의 정의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것이며, 교류와 협력을 해서 이러한 가치를 동독으로 전파하고 이를 통해 동독을 변화시키는 것이었다. 이러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서독도 더욱 민주주의를 향해 변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가 말하는 민주주의는 자유의 확대는 물론 사회시장경제가 심화되는, 즉 분배의 정의가 실현되는 민주주의를 의미했다. 서독에서 '보다 많은 민주주의를 실현하자 (mehr Demokratie wagen)'는 그의 주창은 이러한 의미를 또한 담고 있었다. 그는 독일의 민족주의, 나치 과거의 유산을 철저히 극복하기 위하여 유럽통합을 지향하는 차원에서 서유럽통합에 일찍부터 찬성하였다. 그는 일찍이 1954년 사민당 당론에 거슬러 서독의 나토 (NATO) 가입에 찬성하였다.⁴⁹ 그러면서 늘 유럽 전체의 통합이라는 지향점을 놓치지 않았다. 이를 위해 그는 철저한 독일의 과거청산을 통해 진정한 유럽의 화해를 이루고자 하였는데, 1970년 12월 폴란드에서 수상의 몸으로 무릎을 꿇고 독일의 과거를 사죄했던 것 또한 같은 맥락이었다. 브란트는 학교 교재들이 자유롭게 이념의 문제, 동과 서의 관계를 다룰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여건을 만드는데 큰 관심을 보였다.⁵⁰ 여기에서 그가 가장 크게 역점을 두었던 것은 다원주의의

⁴⁹ 그는 이 평화를 위해 일찍부터 유럽합중국 꿈에 대한 깊은 성찰을 가졌다. Nr. 63, Artikel Brandts. □Der Traum von Europas Vereinigten Staaten□ 28. Dezember 1939, Bundeskanzler-Willy-Brandt-Stiftung (hrsg.), *Berliner Ausgabe Band 1, Willy Brandt. Hitler ist nicht Deutschland. Jugend in Lubeck Exil in Norwegen 1928-1940*, pp. 452-458.

⁵⁰ 노명환, 사민당/자민당 연립정부의 동방정책과 동·서독 관계에 대한 국민 의식 개혁 교육 그리고 그 변화 (1969-82) - 국가 상황에 대한 보고와 역사, 지리 그리고 사회과학 학교교재들의 내용

원리가 교육의 근간으로 자리 잡게 하는 것이었다. 반공주의는 단순한 흑백 논리, 적과 동지의 논리 속에서 진영내의 통제와 독재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되었다. 그는 이러한 관점에서 앞에서 언급했듯 매카시적 반공주의를 서방의 타락상(Entartung)으로 규정했던 것이다.⁵¹ 이러한 정책들은 그의 반공주의에 기초한 동방정책을 추진해 가는데 주요 원칙들로 작용했다.

1982년 기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사민당의 동방정책이 계승되었는데, 위에서 설명한 반공주의 정책에서 기본적인 합의가 자리 잡고 있었다. 동방정책이 서독 내부를 설득할 수 있었다. 물론 브란트의 반공주의와 기민당의 반공주의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그럼에도 앞에서 서독의 냉전의 반공주의 내재화 과정에서 살펴보았듯이 서독은 기본적인 합의가 가능한 토양을 갖추고 있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전후 다원주의 사회를 성공적으로 발전시켜 오고 있었다. 이러한 서독 내 다원주의 토양과 서로 다른 정체 세력들 간의 기본적인 합의는 독일 통일의 밑거름이 될 수 있었다.

IV. 맺음말

지금까지 서술했듯이 햇볕정책과 동방정책은 각각 남북관계와 동서독관계에서 반공주의에 기초한 분단극복 정책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빌리 브란

을 중심으로 -, 국제지역연구 제 10권 제2호, 2006년 여름호(통권 37호), 63, 71, 72 쪽.

⁵¹ Bundeskanzler-Willy-Brandt-Stiftung (hrsg.), *Berliner Ausgabe Band 3, Willy Brandt. Berlin bleibt frei. Politik in und für Berlin 1947-1966*, p. 177.

트리의 동방정책은 성공을 하고 김대중의 햇볕정책은 빛을 보지 못하였다고 할 때 필자는 그 원인을 햇볕정책 자체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정책이 실시된 토양에서 찾아야 한다고 본다. 서독의 경우와 비교해 보았을 때 그 토양의 문제란 다원주의를 결한 반공주의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토양의 조건에 대해 근원적인 성찰을 필요로 하며 다원주의에 기초한 진정한 의미의 반공주의, 즉 자유, 정치적 및 사회적 민주주의, 인권의 보장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 물론 북한은 동독과 많은 면에서 다르다. 북한은 동독과 다르게 권력의 세습이 이루어지는 독재체제로 폐쇄되어 있고 인권 및 사회·경제 상황이 극히 열악하다는 세계적인 비난을 받고 있다. 어느 시점부터는 핵무기를 개발해 왔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본문에서 상술된 더욱 진정한 반공주의 자세가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이 토양의 열악성 속에서 김대중의 반공주의 화해·협력의 분단극복 정책은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았다. 그의 정책은 용공주의로 비난받기도 했다. 브란트는 토양이라는 측면에서 비교적 용이한 상황에 있었다. 김대중은 아시아 국가들의 협력과 분단극복 정책을 연계하는 것도 용이하게 추진할 수 없었다. 브란트는 동방정책을 유럽통합 정책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서독인들이 다원주의 가치를 깊이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사회·문화적 배경이 작용했다. 김대중의 햇볕정책은 브란트의 동방정책에 비해 보다 강력한 내적 갈등을 야기하였다. 본문에서 설명한 바 동독을 국가로 인정하고 오더-나이제 강 이동의 영토를 포기하고 큰 규모의 동독에 대한 경제 원조를 담고 있는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에 비해 김대중의

햇볕정책은 내적 갈등을 야기할 소지가 적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의 햇볕정책은 브란트의 동방정책과 비교가 안 되게 골이 깊은 침예한 내적 갈등을 야기했다. 이는 무엇보다도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 현대사가 독일 현대사와 다른 특징에 기인한다고 하겠다.

빌리 브란트가 동방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서유럽통합과 미국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 서방동맹에 그 기초를 두었음과 유사하게 또는 그보다 훨씬 강도 높게 김대중은 햇볕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한미동맹, 서방동맹이 초석임을 강조하였다. 그럼에도 서독에 비해 남한에서 미국과의 관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더 높았다. 이러한 차이점들을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는 앞으로 햇볕정책과 동방정책이 수행된 토양으로서 서독과 남한의 반공주의에 대해서 보다 더 깊이 살펴보고 이러한 토양과 관련해서 김대중과 빌리 브란트의 두 인물 그리고 그들의 분단극복 정책을 비교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반공주의에 대한 새로운 성찰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는 반공주의가 무엇을 의미하고, 왜 추구하고 어떻게 실행해야 하는지를 보다 정확하게 검토.설정하고 이해할 필요성을 가진다. 진정한 반공주의는 무엇보다도 공산주의의 문제점에 대해서 진지하고 정확한 인식에서 비롯되어야 할 것이다. 이론적으로 현실적으로 공산주의의 어떠한 점이 문제가 되어 반공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반공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진지하고 정확한 성찰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반공주의가 단순히 공산주의를 적대하는 것 자체에 머물러서는 의도와는 달리 사회적 역기능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서독이 독일통일을 이룰 수 있었던 원동력은 서독인들이 동독 공산주의를 미워하는 강력함에 기초했던 것이 아니라 서독 사회가 다원성의 가치

속에서 자유, 정치적 및 사회적 민주주의, 인권을 진지하게 추구한 데에 기인했다. 독일의 통일이 한국에 모델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은 일면 적실한 타당성을 가지고 있으나 서로 다른 반공주의와 같은 사회·문화적 토양에 대한 비교 연구의 가치를 간과해서는 안 되리라 본다.

참고문헌

1차문헌

김대중, 『옥중서신』, (도서출판 한울, 2000, 제1쇄; 2009, 제3쇄)

김대중, 『나의 길, 나의 사상』, 한길사 1994

김대중, 『자서전 1권』, 삼인 2010

Brandt, Willy, *Erinnerungen. Mit den "Notizen zum Fall G."*, erw. Ausgabe, Berlin und Frankfurt/Main 1994

Bundeskanzler-Willy-Brandt-Stiftung (hrsg.), *Berliner Ausgabe Band 1, Willy Brandt. Hitler ist nicht Deutschland. Jugend in Lubeck Exil in Norwegen 1928-1940*

Bundeskanzler-Willy-Brandt-Stiftung (hrsg.), *Berliner Ausgabe Band 3, Willy Brandt. Berlin bleibt frei. Politik in und für Berlin 1947-1966*

Bundeskanzler-Willy-Brandt-Stiftung (hrsg.), *Berliner Ausgabe Band 3, Willy Brandt. Berlin bleibt frei. Politik in und für Berlin 1947-1966*

Kennan to SecState, March 6, 1946 (FRUS, 1946, V, p. 518).

"X Article", *Foreign Affairs*, 25 (1946-1947)

2차문헌

노명환, 「초국가주의 민주주의 평화사상과 지역공동체의 추구 및 분단극복 정책: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과 김대중의 햇볕정책의 비교사적 연구」, 『EU연구』 제 30호 (2012. 02)

노명환, 「사민당/ 자민당 연립정부의 동방정책과 동.서독 관계에 대한 국민의식 개혁 교육 그리고 그 변화 (1969-82) - 국가 상황에 대한 보고와 역사, 지리 그리고 사회과학 학교교재들의 내용을 중심으로 -」, 국제지역연구 제 10권 제2호.2006년 여름호(통권 37호)

노명환, 「미군정기(1945-1949) 독일인 '재교육(Reeducation)' 정책의 내용과 역사적 의미. 학교제도를 중심으로」, 서양사론 제 74호 (2002. 09)

아태평화재단,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 남북연합을 중심으로』, 도서출판 한울 2000.

최영태, 『베른슈타인의 민주적 사회주의론 수정주의 논쟁과 독일사회민주당』, 전남대학교 출판부, 2007

Gimbel, J., *The Origins of the Marshall Plan*, Stanford University Press (1976)

Loth, Wilfried, *Die Teilung der Welt des Kalten Krieges 1941-1955*, , Munchen 1980 (7. edt. 1989)

Schellgen, Gregor, *Willy Brandt*, (김현성 옮김, 『빌리 브란트』, 빗살무늬 2003)